

골판지업계
옥수수전분 시장접근 물량 확보
원가절감, 경영환경 개선 기대

골판지포장제조용 옥수수전분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이 지난 달 25일부터 확정됐다.

골판지포장업계는 수년간에 걸친 시장접근물량 증량 요구 노력을 벌인 결과, 2006년도 수요량의 약 38%에 해당하는 2만1천3백40톤의 옥수수전분을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업체 4개사로부터 국제 옥수수전분 가격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비싸게 공급 받았던 골판지포장업계는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직접 수입 활용함으로써 원가절감은 물론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골판지포장업계는 양허관세로 묶여 골판지제조용 옥수수전분을 직수입할 경우 2백25%의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직수입하지 못하고, 과점적 구조를 갖는 국내 전분업체로부터 국제시세의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어 국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지난 90년대 이후 골판지용도로 증량 요청을 꾸준히 요구해오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 요구한 결과 이번에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 받으면서 처음으로 골판지제조용 물량을 배정받게 됐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제도적 해

택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만큼 용도 외 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요령 및 추천 요령 등을 제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향후 5월 중으로 추천업무가 개시되면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사전 실태조사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소요량의 38% 수준을 추천할 방침이다.

아세아제지(주)
골판지 점유율 2배 늘여
수익성 조절 가능

아세아제지(주)(대표이사 이병무)가 옛 금호페이퍼텍 인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달 12일 아세아제지 주가는 전반적인 약세장에서도 전날보다 2백40원 오른 8천20원을 기록했다.

아세아제지는 옛 금호페이퍼텍을 인수하면서 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골판지 표면지 시장점유율이 종전 23.5%에서 47.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당초 시장점유율 1위였던 한국수출포장의 시장점유율은 36.7%(2위)가 됐다. 이로써 아세아제지는 골판지업계 전체 가동률과 재고량을 조절하면서 판매단가 인상을 주도하는 등 수익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아세아제지는 시장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달 중 판매단가를 10% 인상할 계획이다.

아세아제지에 인수된 금호페이퍼텍은 과거 골판지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조절하기 위해 '덤핑'에 나서 골판지업계 전체 수익성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업계동정

오만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되는 ‘농산물포장 의무화’는 포장재 시장 규모를 2천5백억원 이상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애널리스트는 이를 근거로 올해 아세아제지는 영업이익 1백36억원, 당기순이익 56억원을 달성해 흑자전환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아세아제지는 1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날 제지업체 주가는 아세아제지 계열사인 아세아페이퍼텍을 비롯해 한솔제지, 동일제지, 영풍제지, 한창제지, 대한펄프 등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주)한창제지
황토로 만든 종이 개발
‘에세 순’에 적용

웰빙바람과 함께 안전한 포장재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토로 만든 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한창제지(대표이사 김종선)가 황토로 만든 기능성 종이 개발에 성공했다.

황토를 사용한 제품은 웰빙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돼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으나 제품을 포장하는 종이에 황토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창 측은 “황토종이는 원적외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황토박사 백우현 경성대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했다”며 “이 제품은 황토의 순기능 외에 우리 몸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기능도 있어 국내 공인 검증기관인 전자재시험연구원과 원적외선협회 등에서 원적외선 방사율에 대한 검증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황토종이는 경남 산청지역에서 채취한 질 좋은 황토와 음이온 발생물질을 종이 표면과 후면에 가공처리해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원적외선이 인체에 흡수되며, 제품을 포장하면 내용물에 대한 항균·냄새흡착과 식품의 온열효과를 증대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황토종이는 전통과 건강 이미지를 추구하는 제품에 환경친화적인 고급포장지로 사용될 예정이나 우선 이 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KT&G에서 출시한 담배 브랜드 ‘에세 순’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창제지는 92년 국내에서는 처음 올 펄프(All Pulp) 전용 머신을 도입해 1백% 천연펄프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포장에 안전한 종이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SK(주)
해외 고급 윤활기유 1위 굳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조인식 가져

SK(주)(대표이사 신현철)가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해외 고급 윤활기유 시장에서 독주체제 구축에 나선다.

전 세계 고급윤활유(그룹3) 시장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SK(주)는 고급 윤활기유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자사의 세번째 윤활기유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SK(주)는 공장설립을 위해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PT Pertamina)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SK(주) 신현철 사장, 유정준 전무를 비롯해 아리 소마르노 페르타미나 사장 등 양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설립조인식을 가졌다.

이 법인의 총 자본금은 1억7천5백만 달러 규모로 자카르타에 설립된다.

이 합작법인은 현지공장의 건설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SK(주)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해외 시장의 마케팅 및 판매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두바이에 건설예정인 윤활기유공장은 2008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국내 1, 2차 기유공장과 비슷한 규모인 하루

7천2백50배럴이다.

국내 정유업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장 설립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품 생산 시 SK(주)의 그룹3 기유 1일 생산량은 2만3천 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SK(주)는 인도네시아 법인설립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풍부한 원재료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K(주)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공장을 미국 및 유럽시장 확대의 전초기지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이날 석유·화학·윤활유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및 기타 국가에서 원유 등 자원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발



▲ SK(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조인식 가져

업계동정

굴, 양사간 거래확대, 상호 기술 및 기술 정보 제공, 엔지니어 교육, 유통 채널 개발, 신규 사업 발굴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시 농협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농산물안전관리 인정

제주시 농협(조합장 문시병) 직영선과장과 하귀농협(조합장 김경출) 광령유통센터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방해룡)은 지난 달 14일 제주시농협 직영선과장과 하귀농협 광령유통센터를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농업회사법인 통통에 이어 도내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3곳으로 늘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따른 감귤 등 우수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GAP우수농산물은 반드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위생적인 처리단계를 거쳐야 출하를 할 수 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생산과정 및 유통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점 관리하는 제도이다. 생산단계의 우수농산물인증제도와 저장·선별·포장 단계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제도,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생산내역 및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제도가 통합된 것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참여하는 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단체 및 기타 농협소속의 유통센터 등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지업계 올 경영혁신 성과 가시화 원가절감, 고품질 수익 창출

제지업계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한 경영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제지업계는 각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원가는 낮추고 제품의 질은 향상시켜 이익 규모가 전년대비 최소한 두자릿 수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무림제지가 지난 2004년 말부터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영혁신(PI) 프로젝트가 오는 7월이면 완성된다.

PI 프로젝트는 신무림제지가 1백억원을 투자해 기존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선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한 전략으로 지난해 ‘킵 오프’ 행사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심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실천을 위해 이에 걸맞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하고 있다.

신무림제지 관계자는 “PI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 이후는 현재의 이익 규모보다 30% 이상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업계 최초로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한솔제지는 지난해 도입한 식스시그마(6σ)를 통해 경비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솔제지가 도입한 6σ는 각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실수와 제품의 불량률을 통계적으로 관리해 불량률은 낮추고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21세기형 기업경영 전략으로 국내 제지업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선진 수준의 기업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6σ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는 물론 품질, 브랜드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같은 무형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
수산물 유통 새 장 열어
4대 어종 중심으로 진공포장돼 출시

대형 업종별 수협들이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소비자와 연결하는 방식의 새로운 유통구조 개발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판매책으로 나섬으로써 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조합원들의 주 포획 어종을 가공해 판매하기로 하고 최근 부산지역 모 가공공장과 수산가공물 생산협정을 맺었다.

참조기와 떡갈치, 삼치, 오징어 등 대형기선저인망 업계가 주로 포획하는 4대 어종을 중심으로

개발될 수산가공물은 염장방식을 통해 가공공장에서 진공포장돼 곧 출시될 예정이다.

수협 측은 이렇게 생산된 수산가공물을 수협의 이름을 걸고 대형할인점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고 부산지역 대형할인점들을 대상으로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수협은 또 자체 홈페이지와 수산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도 나서기로 했으며 수협이 주주로 있는 농수산TV 홈쇼핑을 통해서도 수산가공물을 판매키로 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최명립 상무는 “조합원들이 잡은 수산물을 수협이 사들여 가공공장을 통해 가공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안정과 함께 새로운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선망수협도 상반기 중으로 수협이 직접 운영하는 생고등어 전문점을 서울 해양수산부 청사 인근에 내기로 하고 장소 물색에 들어갔다.

이는 조합원들이 잡아온 싱싱한 고등어가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수산시장으로 팔려나갈 때까지 70여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신선도가 떨어져 생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수협 측은 생고등어 전문점에서 직판하는 생고등어 요리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전국에 체인점을 낼 계획도 세우고 있다. 대형선망수협은 지난 달 6일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한 김성진 해수부 장관에게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선망수협 김원권 조합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기본방침은 대형기선저인망과 같다”면서 “두 수협이 공동으로 직판장을 열고 직접 판매에 뛰어드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업계
네모난 계란 출시
우유팩 포장

최근 네모난 계란이 나와 주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식품매장에서는 지난 달 8일부터 가공처리한 액상 계란을 우유팩에 담은 '네모난 계란'을 판매하고 있다.

'네모난 계란'의 가장 큰 특징은 계란을 깨거나 섞는 번거로움 없이 개봉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모난 계란은 위생에 신경을 써서 만들어진다.

우선 신선한 계란을 세척수에 넣어 계란 껍질의 살모넬라균을 제거한다. 그 다음 할란기를 통해 계란 껍질을 자동으로 깬다.

균질기를 통해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골고루 섞은 후 살균과정을 거쳐 우유모양 팩에 포장돼 매장으로 나오게 된다. 특히 네모난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가 섞여 있어 국이나 라면 등을 조리할 때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 계란껍질 제거시 여과장치를 통해 필터링하기 때문에 껍질이 음식물에 혼입될 염려가 없다.

이 밖에도 네모난 계란이 일반 계란보다 편리한 점은 보관이 간편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달걀은 면적이 넓어 보관이 불편하지만 네모난 계란은 우유팩에 담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이 편리하다. 또 우유팩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용 후 쓰레기 처리도 깔끔하다.

특히 계란 흰자의 단백질만을 섭취하기를 원하

는 소비자를 위해 노른자와 흰자를 섞어 놓은 '전란' '제품과 흰자로만 된 '난백' '상품으로 구분해 시판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상품본부 한경호 생식품 바이어는 "네모난 달걀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과업계
과자공포, 자연이미지로 극복
자연친화적 포장 이용

요즘 인공첨가물에 대한 논란으로 과자 매출이 크게 떨어지자 제과업계가 매출 회복을 위해 대거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인공적 이미지를 줄이고 천연 느낌을 강조하는 포장들이 늘고 있다.

인공첨가물 보도 이후 한달 동안 롯데와 오리온, 해태 등 제과업계는 지난해보다 최고 2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과업체들은 각종 인공첨가물 사용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매출회복을 위해 몸에 해롭지 않다는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매출감소가 두드러졌던 크라운은 대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웰빙 문구를 직접 포장지에 담았다.

해태의 대표 아이스크림인 브라보콘은 새 모습으로 바꾸며 일부 품목은 완전히 녹색으로 탈바꿈했다. 롯데는 녹차를 소재로 한 아이스크림과 껌을 대거 출시하며 자연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오리온에서 출시한 샌드위치도 은은한 하늘색에 보리이삭을 통해 천연의 맛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건강, 자연지향적으로 제품 포장도 자연 친화적인 색이나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청
소포장 고춧가루제작
총 6종 새롭게 선보여

괴산군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단위의 야외 활동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소포장 고춧가루의 사용량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고춧가루 소포장재 제작을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4천5백35만4천원을 투자해, 3십만매를 제작 할 예정이며, 포장재의 종류는 소포장재 5g, 10g, 신포장 5g, 20개입, 10g, 20개입, 플드 5백g, 플드 1kg 등 소포장 2종, 신포장재 4종 총 6종이 새롭게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괴산청결 고춧가루공장에 지원되는 포장재 사업으로 고춧가루 판매수익이 증가 될 것으로 공장관계자는 기대하고 있으며, 증가원인으로는

일본으로 현재 수출되고 있는 괴산청결 고춧가루 판매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소규모 사용량이 많은 일본 소비자의 경우 휴대나 보관이 손쉬운 제품의 고춧가루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제작을 서두르고 있다.

군은 이번 소포장재 제작은 기존 고춧가루포장재의 한계성과 지리적 표시제, 해섭 인증 등으로 차별화 전략에 성공해, 소비자 인지도 상승효과로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고춧가루 판매량 증대는 괴산청결고춧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농가 소득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볼테크놀로지스코리아
RFID 관련 세미나 개최
이마트, 대우자동차 등 성공사례 소개

기업용 모빌리티 솔루션 선두기업인 심볼 테크놀로지스코리아(지사장 김경석)는 지난 달 1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고객 3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심볼의 RFID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심볼은 1990년대 원거리 사무실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이 이제는 EDA(산업용 PDA), 휴대폰 등을 통해 어느 곳이든 이동하며 업무가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



▲ 괴산군청 고춧가루포장 제작

업계동정

한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로 RFID 및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솔루션을 소개했다.

기조연설을 가진 심볼의 알란 마커스(Alan Marcus) CMO겸 부사장은 “전세계 모바일 업무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접근해야 하는 정보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커스 부사장은 “심볼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실시간으로 인력 및 유통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및 대우자동차 등 국내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심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조 및 유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심볼 솔루션이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모빌리티 솔루션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유통 업계를 위한 심볼의 전략을 발표한 벌린 야우드(Verlin Youd) 부사장은 “심볼의 솔루션은 공급자와 소매점 간 연계를 극대화 해 유통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볼테크놀로지스코리아의 김경석 지사장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와 RFID는 유비쿼터스 라이프를 앞당기는 핵심 솔루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며 “심볼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의 다양한 산업 고객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펼쳐 국내



▲ 심볼테크놀로지스코리아 RFID 관련 세미나 개최

시장에서 심볼의 입지를 더욱 강화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라스캠
정품확인용 스티커 개발
브랜드 로고 등 직접 확인

새로운 개념의 정품확인용 스티커가 개발돼 모방품과 판매점·방문판매원의 변칙적인 상행위로 골머리를 앓아온 제조업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라스캠(대표 정용건)은 국내 및 국제특허(PCT)를 출원한 정품확인용 스티커 ‘라스테이프(LAS tape)’를 개발, MP3플레이어·화장품·주얼리·골프용품 업체 등과 납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달 20일 밝혔다.

라스테이프는 자체 개발한 복합수지(VM32PTL)와 강도·내마모성이 뛰어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등으로 코팅·증착·숙성(50℃, 72시간)시켜 제작하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불가능하고, 인쇄된 브랜드 로고 등이 가혹한 환경에서도 3년 이상 온전하게 유지된다고 라스캠은 설명했다. 제조업체가 라스테이프로 만든 스티커를 제품 포장박스나 제품 표면·품질보증서·태그(가격·원산지·소재 등이 표시된 종이) 등에 부착하면 바이어는 물론 최종소비자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로고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경열 전무는 “3월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홀로그램이 복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로운 정품확인 방법을 고민 중인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모조품·역수입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거나 유통업체·방문판매원의 변칙적인 판매행위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제조업체들 중에는 바코드를 함께 인쇄해 달라거나 별도의 불법유통 단속용 비표 제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전했다.

한솔제지(주)
유럽 포장시장 진출
켈로그사와 5만톤 수출계약

한솔제지(주)(대표이사 선우영석)가 국내 제지업체 중 처음으로 유럽시장에 백판지를 수출한다.

한솔제지는 세계 최대 시리얼 제조업체인 영국의 켈로그(Kellogg) 사에 포장용 백판지 5만톤(3천만달러)을 2008년까지 수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켈로그가 연간 사용하는 물량의 30%이다. 켈로그 납품으로 포장지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회사는 유럽시장 진출을 목표로 지난 2년간 엄격한 환경관련 시험검사인 ISEGA(유럽의 종이와 펄프 관련 유해물질 검증 및 친환경 관련 인증)를 통과하는 등 투자와 노력을 집중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유럽시장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은 안정적인 수급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인쇄물의 고급화와 품질의 요구 수준이 높아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수출 계약은 현지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동정

켈로그는 작년 매출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시리얼 제조업체로 세계 17개 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1백8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2006년을 "롯데제과 르네상스 구현의 원년"으로 선포, 제2도약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에선 장기근속상, 경영대상, 우수부서 및 우수협력업체상 등 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졌다.

롯데제과(주)
39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롯데제과 르네상스 구현의 원년 선포

제과업계
평범한 디자인 보호 안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포장 개발해야

롯데제과(주)(대표이사 한수길)는 지난 3월31일 창립 39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김상후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사를 통해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해 경쟁자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할 중

제품의 겉모습을 경쟁사의 히트상품과 유사하게 만든 이른바 '미투(me too)' 제품에 대해 최근 법원이 잇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법원이 디자인권의 인정 범위를 엄

(주) 창립 제 39 주년
 2006. 4. 3



▲ 롯데제과(주) 39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격하게 해석, 독창성이 뛰어난 디자인에 대해서만 선발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달 12일 크라운제과가 자사의 '콘칩'을 모방해 비슷한 포장의 '콘칩'을 만들어 판매한 오리온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오리온 콘칩은 크라운 콘칩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포장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크라운제과측의 주장에 대해 "은박 재질에 제품명을 적고 내용물을 그려넣는 디자인은 제과류 포장에서 매우 일반적인 방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SK케미칼이 제일약품의 관절염 패치제 '무르페'가 자사의 '트라스트'와 비슷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킨다며 제일약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후발주자인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해 8월 쿠키제품 '마가렛트(롯데제과)'와 '마로니에(오리온)'를 놓고 벌어졌던 롯데제과와 오리온 간의 소송에서도 선발업체인 롯데제과가 패소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단지 남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선발업체의 포장 디자인이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아 후발업체가 타격을 입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문선영 변호사는 "포장 용기에 제품의 모양이나 재료 등을 그려넣는 단순한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라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미투 제품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제과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아예 신제품 개발은 도외시한 채 잘 팔리는 경쟁업체의 제품을 복사하는 '미투 마케팅'을 공언하고 나선 업체들도 있다"며 "법원이 이 같은 모방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시장 질서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과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아예 신제품 개발은 도외시한 채 잘 팔리는 경쟁업체의 제품을 복사하는 '미투 마케팅'을 공언하고 나선 업체들도 있다"며 "법원이 이 같은 모방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시장 질서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농심
무과마탕면 이물질 "폐유 아니다"
위해성 입증 시 판매금지 조치

(주)농심(대표이사 이상윤)은 지난 달 3일 자사 제조상품인 '무과마탕면'에서 폐유 찌꺼기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폐유가 아니라 팜유"라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자동으로 포장되는 라면 스프 걸봉에 생산 시설의 롤러 윤활유인 팜유가 묻어 색깔이 변한 것"이라며 "어찌됐든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심 측은 문제를 제기한 울산지역 소비자와 합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라면의 제조공장이 있는 부산 식약청은 "사상구청에서 일단 조사해 문제가 생기면 위생 점검을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이물질이면 시정명령에 그칠 것이지만, 위해성이 입증되면 식품법을 적용해 판매 금지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과마탕면'은 농심이 지난 2001년 3월 출시한 라면으로 분말스프와 건더기스프 외에

업계동정

동결 건조된 파와 고추 등 갖은 양념이 첨가된 스프를 추가해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웅진그룹
親 환경경영 **앞장**
 포장, 부품 등 친환경적 제품으로 바뀌

웅진그룹(회장 윤석금)이 환경경영선포식을 갖고 환경기업으로 변신한다.

웅진그룹은 지난 달 25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웅진빌딩에서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웅진건설 웅진식품등 전 계열사 차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경영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윤석금 회장이 환경경영을 다짐하는 그룹의 결의를 대내외에 알리고 임직원들의 환경 교육 이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환경경영 실천방안들을 제시했다

웅진그룹은 이같은 환경경영선포식을 계기로 경영활동 전반에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제품의 포장, 원료, 소재, 부품 등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바꾸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환경보호에 집중해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이천에 건립하는 어린이 테마파크 '웅진 어린이마을'도 생태학습공간으로 조성하며 태양광 발전사업등 친환경 사업에도 새로 진출할 방침이다.

웅진그룹의 환경경영은 윤석금 회장외에 작년 그룹 부회장겸 웅진코웨이 감사로 영입된 이진 전 환경부 차관의 주도로 전개해 나가게 된다.

웅진그룹은 환경 경영 선포식에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충남 공주시 유구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등 환경보호 운동을 해왔다. 또 최근에는 오리공법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주시 유구읍 문금 2리 지역 농가와 농산물 구매계약을 맺고 올한해 2억2천만원 규모를 구매,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 소비할 예정이다.

웅진그룹은 앞으로 이같은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크게 늘리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강좌와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환경의식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화이자제약(주)
포장오류 제품 자진회수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 기해

한국화이자제약(주)(대표이사 아멧픽션)은 지난 3월 노바스크 5mg 5백정 병포장에 봉합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이 소량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고, 포장 공정상의 오류가 해당 제조번호에만 발생했음을 확인,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자진회수를 결정했다.

또한, 한국화이자제약은 도매업체,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자진 회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진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회사 측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재교육 및 감독 강화와 공정개선책을 보완, 완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준 높은 생산공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